

몸소 가지고오신 사진자료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건설중에 있는 룡라물놀이장을 찾으시었을 때에 있는 일이다.

이날 탈의함들의 배치방법을 알려주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문득 자신께서 며칠전에 물미끄럼대옆에 건설한 탈의실을 돌아보면서 탈의실에 놓을 옷걸이가 달린 량면의자를 수첩에 그려주었는데 동무들이 충분히 리해하지 못한것 같아 사진자료들을 가지고나왔으니 보아야겠다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뇌리에는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렇게 옷걸이가 달린 량면의자들을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려대고 앉아 양말도 신을수 있고 옷걸이에 옷을 걸어놓을수 있기때문에 사용자들이 편리할뿐 아니라 탈의실의 면적리용률도 높일수 있다고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던 사실이 되새겨졌다.

쫓구치는 걱정속에 일군들은 사진자료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의자형태들이 반영된 단순한 사진자료로만 여겨지지 않았다.

우리 인민을 끝없이 위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의 세계를 말하여주는 숭고한 화폭으로 안겨들었다.